질서란 무엇인가

짐 할게를 저도 그렇다. 수많은 건축자재가 제 각기 가로세로 배치되고 있어서 막고 되고 마무로 된 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을 자리는 잡혀있고 서 제가 백여만한 것을 받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허물 어지고도 한다. 그래서 건축자재 하나하나에 서 있어야 할 위치. 제가 만드는 것들 구실. 또 나무로 만들어 생기는 실용적 용이하게 쌓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집 합세를 짓는데 나는데 절대적 으로 필요한 조건이, 조화의 관계이다.

짐 할게를 지어하는데도 그것은 절차와 조화가 요구되는데 하물며 온갖 사람들과 서로 합해 서 이루어진 집단이 제일들 — 그 사회적 구조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다.

집정도 모든 존재의 기본원칙이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다. 비자연을 추구하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없는 신흥한 절차와 조화가 있는것이며 인간사회도 그 같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절차가 있다.

다만 자연의 절차가 태초부터 있었으니, 원시인 것이라면, 인간의 절차는 부단히 개선되어가는 조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절차있는 사회는 안정적 사회이며 안정적 사회는 성장하는 사회가 된다. 질서 가 잡혀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정착하게 조화되어 그 사회의 내적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다. 그러나 사회와 발전을 취할 수 있는 조사적 관점은 인간관계를 합리적이다. 합리적 질서를 갖춘 사회는 추진력이 된다.

사회조직이란 ‘무선’이 있어야 할 곳 에 있어야 한다. 복잡한 목적을 달성하는 발자국, 위치에 따라 그 자리에 알맞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듯이다.

아려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위치조건은 그건은 위치에서 끝나지 아니한 장소의 이용, 자리를 지키는 문제, 경제적인 자가위치를 옮가려는 인위적이며 지리 적까지는 물론도 자가가 있는 자리, 또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아먹는 제가 끝나는 것이다.

조화된 사회를 이루려기 위해서는 위치적 조화 와 적절적 조화가 전하게 되어야 한다. 제가 겪 어 economía적 제약이 전하게 되어야 한다. 제가 겪 어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내는 데는 전과가 대개 되는 데 적절한 조예를 수행하는 최선의 노력이어야함에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관계서조가 할 수 있다. 누구든 고집하여 혼자 살 수는 없다. 결국 지식적인 타인이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게하게 된다.

사회구성의 과정의 핵심적인 관계형식은 모든지가 단과 발전의 바탕이 된다.

상호간의 관계가 허물어진 상호가 일체 사회는 불안해지고 되돌라간다.

이상에서 강조한 정치와 역학과 관계의 세 가지 점차를 논리적인 타입에서 끌어내려고 국민적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안 민족적으로 제도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하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앞으로 범위민족적 정치사회가 운동을 생활체제로 토착화시키기 위해 신중하고 합리 적인 추진방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사회 제도와 풍토생활을 통해 국민의 공간과 호흡 속에 풀려있길 수 있도록 정착하여 생활을 하며 그것은 사회운동에서도 생활주의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규제나 단순히 조치보다는 사회학과 체제적인 고려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생활과 율리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질서를 이جاد하기 위한 토론음용과 부족음용의 문헌수권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행동무지의 주체가 처음이어야 할, 절차정리가 운동은 본래 운행일을 대표하게 하며도 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 사소한지만 경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나타나는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생활 모든면에서 편안함과 평화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절차정리 운동을 해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적 조화를 이르는 각종 무질서를 절차적으로 퇴치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질서, 행위 질서, 상거래질서, 그 밑에 각종 공공질서 중 수십의 절차에서 순화되도록 정리와 개선책을 명확히 나갈 것이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앞으로 본국이나 선진의 아 니나,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나 야서 사회운동의 영향을 낼게주는 효과적인 방도인 것이다.